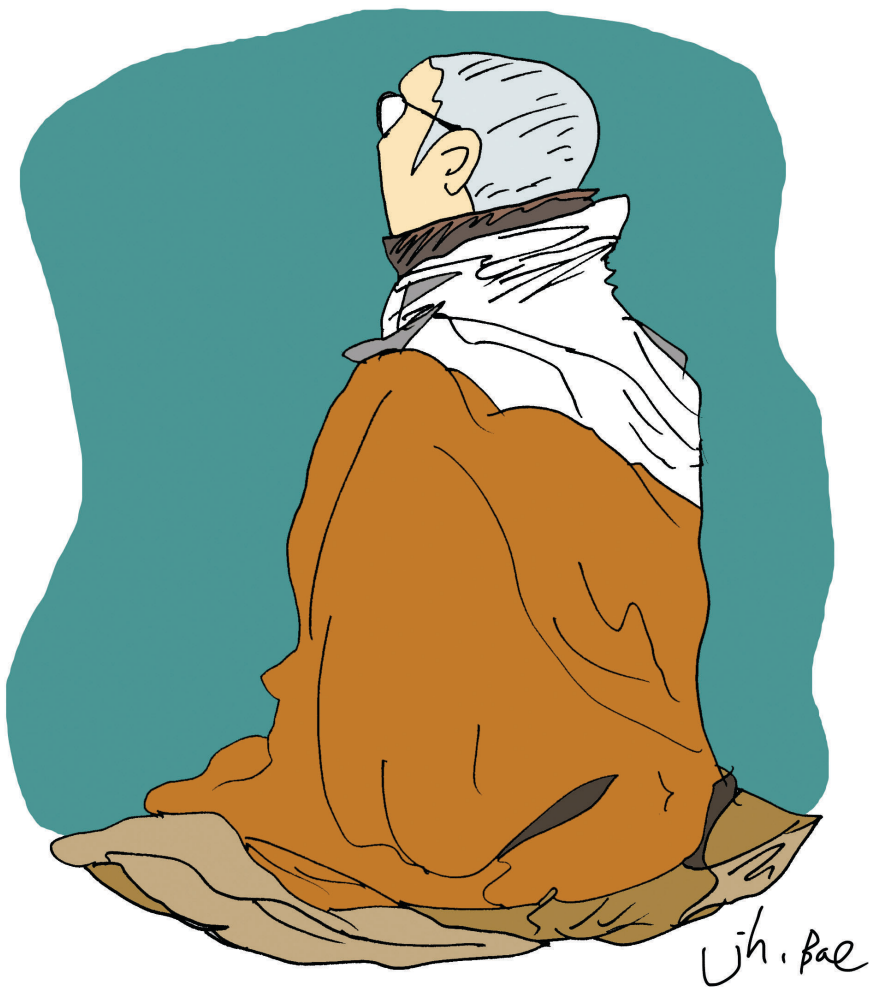


배중훈의 명상카툰



적멸의 순간

저녁 예불시간, 스님의 독경이 끝나자 죽비소리에 맞춰 모두 참선에 든다. 적막과 적멸의 순간. 겨울바람에 법당의 목재들이 내는 삐걱삐걱, 두런두런, 들썩들썩 소리도 이 순간 모두 숨을 죽인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진 집중이 되질 않는다. 세상에서 나 혼자 소음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았다. 고요한 공간에 유리구슬 한 통을 쏟아버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기분이다. 나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느껴야 하는 외로움을 다시 마주했다. 하지만 그 고독을 견디고 즐겨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다. 다시 느긋하게 즐겨야 할 시간이다.

배중훈 작가는... <내 마음의 죽비소리> <자네 밥은 먹었는가?> 등 작품집을 발간한 바 있다. 2013년 제15회 단원미술대전, 2013년 제2회 구상 공모전서 입상했다.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천 개의 손 ④

“아빠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엄마는 꼭 돌아올 거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우리는 곧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진호는 아빠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빠가 언제부터 눈을 뜰 수 없게 됐는지 진호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마도 겨울이 되면서부터였을 것이다. 아빠의 몸에는 여러 개의 줄이 연결되어 있었다. 코에 연결된 줄이 아빠에게 산소를 넣어주고, 손등에 연결된 줄이 아빠에게 밥을 주었다. 아빠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가래를 뱉는 것도 오줌을 누는 것도 모두 줄이 대신해 주었다. 병실의 다른 환자들이 아빠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지만, 진호의 눈에는 아빠가 그저 잠든 것처럼 보였다. 병자들을 돌봐주시는 향림 스님은 아빠가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어도 들을 수는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려고.

는 사흘 동안 거의 아무 것도 먹지 못했다. 공원의 무료 급식소는 늘 줄이 길었다. 일찍 나가서 줄을 서보았지만, 진호 앞의 줄은 좀체 줄어들지 않았다. 진호 앞에 슬쩍 끼어드는 사람들을 향해 진호는 다른 할아버지들처럼 싹대질하거나 욕을 퍼부어 줄을 끊었다. 오늘은 바로 앞에서 급식이 끝났다. 앞에 서 있던 아저씨가 마지막 남은 식판을 받아 가며 말했다. “이것 참, 미안하게 됐구나. 하지만 나도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이 밥을 양보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괜찮아요. 난 마트에 갈 거예요. 토요일엔 맛있는 게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마트에 들어가기 전에 진호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다. 물비누로 거품을 내서 얼굴과 목을 말끔하게 닦고, 더부룩해진 머리에 물을 발랐다.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거울을 봤다. 마트에 오면 진호는 조용히 움직였다. 시식코너 한 곳에서 세 개 이상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사실 마트 안에는 진호보다 더 피폐한 아이들도 많았다. 그런데도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귀신같은 데가 있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어딘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는 다급히 마트에서 나왔다. 엄마 없는 아이에게는 어떤 밤새라도 나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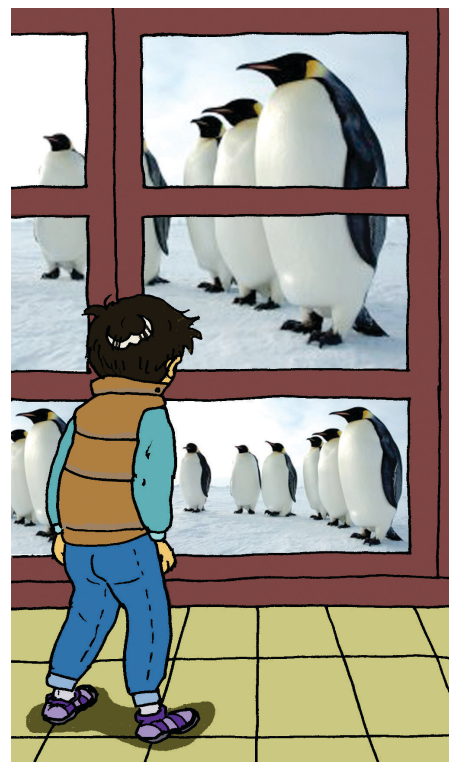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진호는 마트 관리실에 끌려간 적이 있었다. 시식 코너에서 만두를 몇 개인지 계속 집어먹고 있는데, 양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와서 물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엄마는 멀리 계시고, 아빠는 병원에 있고,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진호는 사실대로 말했다. 양복 입은 직원은 시식 코너는 무료 급식소가 아니라까 싸늘하게 말하고는 경찰서에 전화했다. 진호는 직원이 한눈을 파는 사이 도망쳐 나왔고, 다시는 그 마트에 가지 않았다. “아빠, 내가 마트에서 뭘 봤는지 알아? 황제펭귄. 진열해놓은 텔레비전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가슴에 노란 털이 나 있어서 황제펭귄인 줄 알았지. 엄청나게 많은 펭귄들이 눈보라 속에서 서 있었어. 서로에게 몸을 붙인 채 눈을 꼭 감고 있었지. 펭귄의 발 위에는 알이 놓여 있었어. 알을 품고 있는 펭귄들은 모두 아빠들이야. 학교에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 새끼들을 안전하게 키우려고 황제펭귄은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다. 그곳은 가장 안전하고 또 위험한 곳이지. 천적이 없는 곳에는 먹이도 없으니까. 엄마 펭귄은 알을 낳고 먹이를 찾아서 바다로 떠나. 그동안 아빠 펭귄들이 알을 품지, 알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딘대. 아빠 펭귄은 알을 놓칠까 봐 제대로 견디지 못해, 알을 놓치면 알은 금세 얼어 죽어버리니까.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바깥으로 나왔어. 바깥에서 추위에 떨던 펭귄들이 안쪽으로 이동했어. 펭귄들은 그렇게 자리를 바꾸면서 추위를 견딘대. 그런데 펭귄 하나가 그만 알을 놓쳐버렸어. 아빠 펭귄이 뒤뚱뒤뚱 알을 쫓아갔지만, 알은 빠른 속도로 데굴데굴 굴러갔어.” 어째서 펭귄 같은 것에 한눈을 팔았던 걸까. 양

복 입은 아저씨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펭귄을 좋아하니? 아저씨는 환하고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만, 진호는 그 친절이 무서웠다. 엄마는 저쪽에 있어요. 묻지도 않은 말에 대답하고 재빨리 마트에서 나왔다. 시식 코너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했다. 진호는 마른 침을 삼켰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입이 말랐다. 병원 식당으로 갔다. 진호에게 음식을 챙겨주던 상냥하고 예쁜 아줌마는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았다. 진호가 쓰레기봉투를 내놓고, 소독한 수저를 수저통에 옮겨도 진호에게 말을 붙이거나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다. 왜 자주 식당에서 알장거리느냐고, 덩치가 크고 수염이 더부룩한 아저씨가 호통을 쳤다. 진호는 쥐새끼처럼 쪼르르 식당에서 나왔다. “새끼 펭귄이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오면 바다로 갔던 엄마 펭귄이 돌아와, 아빠 펭귄은 목소리를 들은 노래를 부르지, 엄마 펭귄이 아빠 펭귄을 찾을 수 있는 건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래. 엄마 펭귄은 배 속에 있는 물고기를 토해서 새끼에게 먹이지, 그리고 아빠는 엄마에게 새끼를 맡기고 비로소 먹이를 찾으러 떠나. 엄마가 돌아오면 아빠도 노래를 불러줘. 엄마는 아빠의 노래에 마음을 열었으니까. 멀리서도 아빠의 노래를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계속>

우승미 작가는... 200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빛이 스며든 자리>가 당선됐고, 장편소설 <날아라, 잠산인>으로 2009년 제33회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다.



華嚴經 論講 (화엄경 논강)

청량국사의 청량소+통현장자의 화엄론 + 진귀가 지은 진귀론으로 논강함

- ◆ 강의용 화엄경책 사진 첨부 한글 화엄경 강의용 출판
◆ 강의용 사경집 사진 첨부 한글 화엄경 사경집 출판
◆ 2016년 2월 출판예정 진귀수행 화두집(平溫) 출판

- 책 구입은 입금후 1899-9532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平溫 眞歸의 행장

대다수 불자나 종교인 들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理解가 불가능하고 믿기 힘든 不思議 수행자로, 비영리단체 華嚴經 講院의 講主로 재임하면서, 방대하고도 심오한 깨달음의 경계를 설했던 80권 화엄경을 대본없이 즉설로 청량국사의 청량소와 통현장자의 화엄론과 스스로 지은 眞歸論으로 논강하며 또한 팔만대장경을 즉문 즉설하는 희유한 괴짜 修行者 이다.

2015년 현재 화엄경 眞歸論을 500p×100권 분량으로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로 80권 화엄경 주석서를 80화엄 한자원문 + 80권 한글완역 + 80화엄 영어완역 + 진귀론 한글주석 + 진귀론 영어주석으로 집필중이며, 競爭과 政爭, 論爭, 鬪爭, 戰爭, 등으로 온 우주가 갈등하고 화해속인 말법시대에 超國가 超민족 超종교 超종파 超반연 의 화두인 <평온>을 강론하고 힐링하는 財團法人<평온센타-보림>을 건립 추진중 이다.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인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